초등 / 초특 위재권
모바일 / 동영상강의
www.wesaem.com

정답

위재권 편저

이 책의 특징

1. 과목별 기출문제 분석 변형
2. 출제 빈도가 높은 단원 분석
3. 2022개정 교육과정 + 국정 · 검정 지도서각론을 연계해서 문제수록

위재권

과목별 기출변형 뽀개기 110제 + 실전모의고사 뽀개기 10회

국어 기출변형 뽀개기 모범답안

1번		모범 답안(예시)
1)	1점	① 대치 ② 치조음화
2)	1점	파열음화
3)	1점	평음의 유기음화(거센소리되기는 유기음화, 격음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 표준 발음 지도 내용 - 음소

1번	모범 답안(예시)
오류 내용	해당 예
평음의 유기음화	• 갈치[갈치] → [칼치], 나침반[나침반] → [나침판]
이중 모음의 단모음화	• 'ㅝ'를 'ㅓ'로: 뭘로[뭘로] → [멀로], 뭐했는데[뭐했는데] → [머했는데], 뭐냐니까[뭐냐니까]→[머냐니까], 뭐더라[뭐더라] →[머더라] • 'ㅘ'를 'ㅏ'로: 봐봐라[봐봐라] → [바바라], 해봤어[해봐써] → [해바써], 봐요[봐요] → [바요] • 'ㅟ'를 'ㅣ'로: 귀엽고[귀엽꼬] → [기엽꼬], 가위바위보[가위바위보] → [가이바이보], 귀신[귀신] → [기신] ※ 'ㅟ'는 이중 모음은 아니나 「표준 발음법」에서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며, 실제 언중은 대부분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이중 모음의 단모음화에 포함했다.
중모음의 고모음화	• 삼촌[삼촌] → [삼춘], 그리고[그리고] → [그리구], 나도[나도] → [나두]

■ 자음체계 (子音體系) : 자음 음소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음운론적 대립의 총체를 가리키는 언어학 용어.

조음 방법 \ 조음 위치		두 입술 순음	윗잇몸 혀끝 치조음	센입천장, 혓바닥 경구개음	여린입천장, 혀 뒤 연구개음	목청 사이 후음 성문음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 조음위치

전설음화	• 목표음의 조음점보다 혀를 앞쪽으로 움직여 조음이 이루어지는 현상 • 경구개음이 치조음으로 대치되거나(예: /짝자꿍/ → /딱따꿍/), 연구개음이 치조음 또는 경구개음으로 대치되거나(예: /자동차/ → /자돈차/), 성문음이 치조음, 경구개음 또는 연구개음으로 대치되는 경우 등
후설음화	• 목표음의 조음점보다 혀를 뒤쪽으로 움직여 조음이 이루어지는 현상 • 치조음이 경구개음, 연구개음 또는 성문음으로 대치될 경우(예: /자동차/ → /자종차/) • 경구개음이 연구개음 또는 성문음으로 대치되는 경우(예: /책상/ → /책장/) 등
양순음화	• 양순음이 아닌 음소가 양순음(ㅁ, ㅂ, ㅃ, ㅍ)으로 대치되는 경우 • /장난깜/ → /방난깜/ ※ 아동들이 보이는 오류를 살펴보면 /ㅂ/ 계열이나 /ㅁ/으로 대치되는 빈도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경우, 입소리(구음, oral sounds)는 /ㅂ/ 계열로, 콧소리(비음, nasal sounds)는 /ㅁ/으로 대치되는 경향이 있다.
치조음화	• 치조음이 아닌 음소가 치조음(ㄴ, ㄷ, ㄸ, ㅌ, ㄹ, ㅅ, ㅆ)으로 대치되는 경우 • /호랑이/ → /호란이/
경구개음화	• 경구개음이 아닌 음소가 경구개음(ㅈ, ㅉ, ㅊ)으로 대치되는 경우 • /토끼/ → /초끼/
연구개음화	• 연구개음이 아닌 음소가 연구개음(ㄱ, ㄲ, ㅋ, ㅇ)으로 대치되는 경우 • /김밥/ → /김방/
성문음화	• 성문음이 아닌 음소가 성문음(ㅎ)으로 대치되는 경우 • /모자/ → /모하/

● 조음방법

파열음화	• 파열음이 아닌 음소가 파열음(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ㄲ, ㅋ)으로 대치되는 경우 • /모자/ → /모다/
마찰음화	• 마찰음이 아닌 음소가 마찰음(ㅅ, ㅆ)으로 대치되는 경우 •/책상/ → /색상/
파찰음화	• 파찰음이 아닌 음소가 파찰음(ㅈ, ㅉ, ㅊ)으로 대치되는 경우 • /눈썹/ → /눈첩/
유음화	• 유음이 아닌 음소가 유음(ㄹ)으로 대치되는 경우 • /오뚜기/ → /오뚜리/
비음화	• 비음이 아닌 음소가 비음(ㅁ, ㄴ, ㅇ)으로 대치되는 경우 • /로봇/ → /로못/

1번	모범 답안(예시)

❶ 음운변동

음운변동은 음운학적 환경에 따라서 음소의 실현 형태가 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현 형태가 변하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가 긍정적인 것이고, 두 번째가 부정적인 것이다. 긍정적인 음운변동이라 하면 그 아동의 연령에 나타나야 하는 음운변동이 나타나는 것이고, 부정적인 음운변동은 나타나지 말아야하는 음운변동이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음동화 현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음운변동과 부정적인 음운변동 현상을 모두 살펴보자. **'국물'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우리는 '궁물'이라고 읽어야 한다. 이것은 긍정적인 음운변동이고 이것이 국어 음운규칙의 비음동화 현상이다.** 그러나 '국물'을 '국문'일고 읽거나 말한다면 같은 비음동화 현상이더라도 이것은 부정적인 음운변동 현상이 되는 것이다.

❷ 개별 음소의 조음 오류 형태

오류 형태	정의	예
생략	단어에서 음소나 음절이 빠지는 경우	/고기/-/오기/ /별/-/벼/
대치	목표음이 다른 음으로 바뀌는 경우 대치 음운변동 ① 조음위치 ② 조음방법	/사탕/-/타탕/ /선생/-/떤댕/
왜곡	표준음이 비표준음으로 바뀌는 경우	/서울/-/tʃəl/
첨가	필요 없는 음이 삽입되는 경우	/우산/-/쿠산/ /커피/-/커오피/

2번		모범 답안(예시)
1)	1점	어떤 일을 긍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게 한다. - ② ■ 뉴스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①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알려 준다. ② 어떤 일을 긍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게 한다. ③ 여러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주어 여론을 형성한다.
2)	1점	학습자가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의 글을 찾아 읽고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구성한다
3)	1점	① 뉴스의 관점과 보도 내용이 서로 관련 있는지 살피기
4)	1점	출처

【읽기】

[6국02-04] 문제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의 글을 읽고 이를 문제 해결에 활용한다.

(가) 성취기준 해설

[6국02-04] 이 성취기준은 학습자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의 글을 찾아 읽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구성하는 **창의적 읽기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문제 상황과 관련한 읽기 목적 명료화하기, 문제 상황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의 글 선정하기, 다양한 관점의 글을 읽고 **내용의 타당성과 유용성 평가**하기, 문제 해결을 위한 자신만의 **창의적인 해결 방안 마련**하기 등을 학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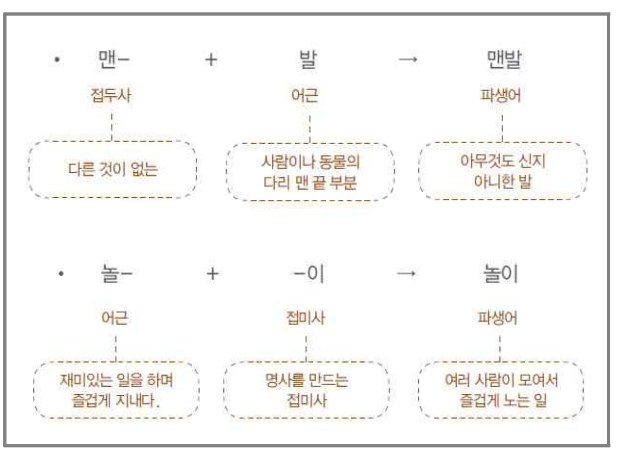
3번		모범 답안(예시)
1)	1점	박 교사: 극본에서는 대사와 지문으로 인물의 마음을 드러낸다. 해설은 때, 곳, 나오는 사람, 무대와 무대 바뀜 따위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2)	2점	㉠ '먹을까'나 '좁을꼬'와 같이 묻는 말은 소리 나는 대로 쓰기 ㉡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낼 때에는 '-(으)로서'를 쓰고,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낼 때에는 '-(으)로써'를 쓰기 때문 **학급 회장은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므로 '학급 회장으로서'와 같이 쓰고, 농사의 시작은 한곳에 머물러 살게 된 수단이 되므로 '시작함으로써'와 같이 쓴다.**

4번		모범 답안(예시)
1)	1점	◦ (1)의 어근 중 '버선, 신'은 명사, '붙-, 입-'은 동사이다 ◦ (2)의 어근들은 모음으로 끝나는 음운론적 조건이 있다. (2)의 접사 '-롭-'은 명사 어근을 형용사 파생어로 바꾸므로 지배적 접사이다. 【해설】 ㉠을 보자. 접사인데 여러 품사에 붙는 접사이다. (1)을 보자. 접사는 '덧'이고 어근은 '버선, 신', '붙-,입-'이다. 각각 명사와 동사이다. (2)를 보자 접사는 '-롭-'이고 어근은 '슬기, 여유, 지혜, 향기'이다. 음움론적 조건이라는 점에서 자음/모음 등등의 단어인데, 다 공통적으로 모음으로 끝나고 있다. ㉡을 보자. 품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정적 접사가 아닌 품사를 바꿔버리는 지배적 접사이다. 어근은 '슬기, 여유, 지혜, 향기'는 기존에 명사였다. 그런데 접사 '-롭-'을 만나 형용사로 바뀌었다. 따라서 지배적 접사이다.

■ 접사와 어미

어근이나 어간과 결합하여 특정한 의미나 기능을 부여하는 형태소를 **접사**라 한다. 접사는 반드시 어근이나 어간과 함께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접사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누어지기도 한다.

우선, 어근과 결합하는 자리에 따라 어근의 앞에 위치하는 **접두사**와 어근의 뒤에 위치하는 **접미사**로 나뉜다. '풋사랑'의 '풋-', '드높다'의 '드-'등은 접두사이고 '웃음'의 '-(으)ㅁ', '정답다'의 '답-'은 접미사 이다. 또한, 그 기능에 따라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파생접사**와 문법적인 기능을 표시하는 **굴절접사**로 나누기도 한다. 파생접사에는 이미 언급한 '듯', '드-', '(으)ㅁ', '답'이 있고, 굴절접사에는 '-다', '-었/았-'등이 있다. 접두사는 굴절접사가 없어 모두 파생접사이고, 접미사는 굴절접사와 파생접사가 모두 존재한다. 굴절접미사는 흔히 **어미**라고 부른다. 접미사를 분류하여 간략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위쌤닷컴(www.wesaem.com)

4번	모범 답안(예시)
	그런데 흔히 접사라 하면 파생접사만을 가리킨다. 결국 접사는 좁은 의미로는 파생접사만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로는 굴절접사(=어미)와 파생접사를 모두 포함한다. 우리가 위에서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를 어근과 접사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한 진술에서 접사란 좁은 의미의 접사, 곧 파생접사를 지칭한다. **파생접사가 어근과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어근의 품사가 바뀌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어근의 품사가 바뀌지 않는 경우 이때 결합하는 접사를 한정적 접사라 하고 어근의 품사가 바뀌는 경우 이때 결합하는 접사를 지배적 접사라 한다.** ■ 어근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어근(語根)이라 한다.** 실질 형태소는 어근의 자격을 가진다. 예를 들어 '바다'는 어근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이고 '논밭'은 어근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인 것이다. ■ 어근과 어간의 구별 **어근은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중심 부분이고 어간은 활용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 '먹이다'의 경우 '먹-'이 어근이고 '먹이-'가 어간이다. '눈물'의 경우 '눈'과 '물'은 어근이고 어간은 없다. 즉 어간은 용언에만 쓰이는 개념이다.

5번		모범 답안(예시)
1)	1점	㉮ 제목 ㉯ 낱말이나 문장 같은 표현
2)	1점	핫 시팅
3)	1점	글쓴이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 비교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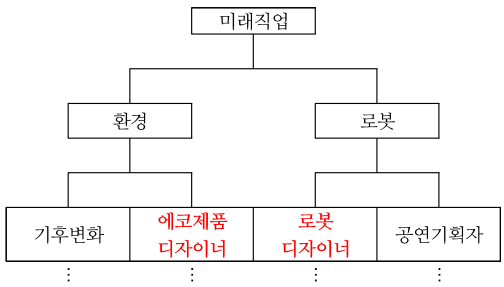
6번		모범 답안(예시)
1)	1점	ⓐ 콜럼버스에 관한 글쓴이의 새로운 관점을 질문 형식으로 제시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 글쓴이의 관점을 잘 나타내는 표현 ● **글을 읽고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 ① 제목과 글에 사용한 표현을 보면 글쓴이의 관점을 알 수 있다. ② 글의 내용 파악으로 글쓴이가 알려 주고 싶은 생각을 찾을 수 있다. ③ 예상 독자가 누구일지 생각해 본다. ④ 글에 포함한 그림이나 사진을 살펴본다. ⑤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와 목적을 생각해 본다. * 관점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바라보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뜻한다. 관점에 따라 같은 사물이나 현상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
2)	1점	① 널븐 ② 자음군 단순화, 연음현상
3)	1점	글의 화제나 대상 파악하기

4)	1점	**콜럼버스 항해와 관련된 다른 관점의 텍스트 내용과 연결을 통하여 텍스트를 이해한다** **상호 텍스트성** • 상호 텍스트성의 개념은 간단히 말하여 텍스트 간의 상호 관련성이라 한다. 이 개념이 처음 논의될 때는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서로 영향 관계에 있다는 비교적 단순한 것이었지만 여러 논의를 거치면서 개념이 넓어졌고, 일반적인 언어 활동과 사고 활동에도 작용하는 것으로 개념이 확대되었다. **상호 텍스트성의 관점에서 보면 텍스트의 이해는 독자의 배경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텍스트의 내용과 연결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것은 읽는 과정에서 독자가 사고 작용을 통하여 관련 텍스트들의 내용과 의미를 연결함을 의미한다.**

6번	모범 답안(예시)
	'자음군 단순화'란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이 중에서 자음 한 개가 탈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앞의 자음이 남는 용례로는 '몫[목], 앉다[안따], 넓다[널따], 외곬[외골], 않네[안네], 앓는[알른]' 등을 들 수 있으며, 뒤의 자음이 남는 용례로는 '닭[닥], 읊다[읍따], 젊다[점따]' 등을 들 수 있다. 연음이란 앞 음절의 받침이 뒤따르는 모음의 첫소리로 옮겨가 발음되는 현상을 말하며,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와 연결될 때 연음이 이루어진다. 제4장 받침의 발음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제9항 **받침 'ㄲ, ㅋ', 'ㅅ, ㅆ, ㅈ, ㅊ,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닦다[닥따] 키읔[키윽] 키읔과[키윽꽈] 옷[옫] 웃다[욷:따] 있다[읻따] 젖[젇] 빚다[빋따] 꽃[꼳] 쫓다[쫃따] 솥[솓] 뱉다[밷:따] 앞[압] 덮다[덥따] 제10항 **겹받침 'ㄳ', 'ㄵ', 'ㄽ, ㄾ, ㅀ', 'ㅄ'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한다.** 넋[넉] 넋과[넉꽈] 앉다[안따] 여덟[여덜] 넓다[널따] 외곬[외골] 핥다[할따] 값[갑] 없다[업:따] **다만, '밟-'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하고, '넓-'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넙]으로 발음한다.** (1)밟다[밥:따] 밟소[밥:쏘] 밟지[밥:찌] 밟는[밥:는→밤:는] 밟게[밥:께] 밟고[밥:꼬] (2)넓-죽하다[넙쭈카다] 넓-둥글다[넙뚱글다] 제11항 **겹받침 'ㄺ, ㄻ, ㄿ'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닭[닥] 흙과[흑꽈] 맑다[막따] 늙지[늑찌] 삶[삼:] 젊다[점:따] 읊고[읍꼬] 읊다[읍따]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ㄺ'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맑게[말께] 묽고[물꼬] 읽거나[일꺼나]

7번		모범 답안(예시)
1)	1점	① ㉡,㉢ ② (가)에서 ㉠의 '삶'은 명사로서 관형어 '우리'의 수식을 받으며, ㉠과 품사가 같은 것, 즉 명사인 것은 ㉡와 ㉢인데, ㉡는 '추-'에 접미사 '-(으)ㅁ'이 붙은 명사로서 관형어 '현란한'의 수식을 받으며, ㉢는 '걷-'에 접미사 '-(으)ㅁ'이 붙은 명사로서 관형어 '학생들의'의 수식을 받는다. ㉮는 '웃-'에 명사형 어미 '-(으)ㅁ'이 붙은 동사로서 부사어 '멋쩍게'의 수식을 받으며, ㉯는 '그리-'에 명사형 어미 '-(으)ㅁ'이 붙은 동사로서 부사어 '잘'의 수식을 받는다.
2)	1점	받침 'ㅂ,ㄷ,ㄱ'이 비음'ㅁ,ㄴ'을 만났을 때, 'ㅂ,ㄷ,ㄱ'가 'ㅁ,ㄴ,ㅇ'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예) 밥물[밤물], 닫는[단는], 국물[궁물]
3)	1점	사실적 질문 - ㉣ 추론적 질문 - ㉡, ㉢ 비판적 질문 - ㉠

8번		모범 답안(예시)
1)	1점	공감
2)	1점	공통점: 맞장구치기 전략 차이점: ㉢은 비언어적 반응이고, ㉣은 언어적 반응이다.
3)	1점	요약하기, 반영하기 ● 소극적 듣기와 적극적 듣기 소극적 듣기는 상대에게 관심을 표명하면서 화자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 갈 수 있도록 맥락을 조절해 주는 격려하기 기술이 중심을 이룬다. '집중하기'는 내 앞에서 말하고 있는 상대에게 집중해 눈을 맞추고, 몸을 향하고,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적절한 손짓을 하는 것이다. '격려하기'는 상대가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기술이다. 적극적 듣기는 청자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화자의 말을 요약·정리하고 반영해주는 구실을 해 화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것이다. ' 요약하기'는 화자의 말을 그대로 요약해 재진술해 주는 기술로, 상대의 말을 분명히 이해했음을 알리고 화자의 현재 상태에 공감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 '반영하기'는 화자가 한 말의 의미를 재구성해서 피드백해 줌으로써 공감을 했다고 느끼게 할 수 있다.

9번		모범 답안(예시)
1)	1점	모둠은 4~5명으로 구성된 이질적 집단으로 구성한다
2)	1점	훑어보기(Survey)
3)	1점	① 그래픽 조직자 ② 
4)	1점	사실적 질문
5)	1점	각 학생의 향상 점수를 계산하여 향상 점수가 우수한 모둠에게 보상한다.

■ SQ3R

❶ 훑어보기(Survey)

텍스트를 본격적으로 교수학습하기 전에 단원명, 단원에 실린 제재의 제목, 삽화, 표, 요약, 학습활동 등을 먼저 빠르게 검토한다.

❷ 질문하기(Question)

전 단계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질문을 만든다..

❸ 읽기(Read)

❹ 확인하기(Recite)

❺ 재검토하기

텍스트의 전체적인 내용을 스스로 재구성하며 잘 이해되지 않는 분을 재검토해본다

■ 미리보기 전략

미리 보기[preview]는 글을 읽기 전에 제목이나 차례, 소개문이나 요약문, 도표나 삽화 등을 미리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이 활동은 글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그리고 글의 내용과 관련된 배경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리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미리 보기를 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목을 보고 그 글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예상해 보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둘째, 소개문이나 요약문을 읽는다. 소개문과 요약문은 글의 요지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소개문과 요약문을 읽으면 글의 중심 생각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소제목들을 읽으면서 질문을 만든다. 이때 소제목들을 읽으면서 찾게 될 정보를 예상하면서 질문을 만드는 것이 좋다.

넷째, 도표나 지도 등의 보조 장치를 검토한다. 이것들은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거나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정보 자원이 될 수 있다.

위쌤닷컴(www.wesaem.com)

9번	모범 답안(예시)

■ 예측하기

글의 제목, 소제목, 그림 등을 훑어보고 글의 내용 짐작하기

[A]

미래의 직업

(제목을 보니 미래에는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는 것일까?)

미래 사회에는 어떤 직업이 주목받을까? 미래에는 '빈집 코디네이터', '반려 동물 변호사'와 같은 생소한 직업들이(위에서 짐작했던 것이 맞네.) 각광받을 것이다. (다음 문단은 '빈집 코디네이터'에 대한 것이겠지.)

1) [A]에서 영수가 활용하고 있는 읽기 전략을 쓰시오

예측하기

■ 읽기 수준별 질문

· 사실적 사고를 요하는 질문 (예 나오는 인물은 누구인가?)

· 추론적 사고를 요하는 질문 (예 그 인물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 비판·평가적 사고를 요하는 질문 (예 그 인물이 한 행동은 옳은 것인가?) 등

■ 사고 수준에 따른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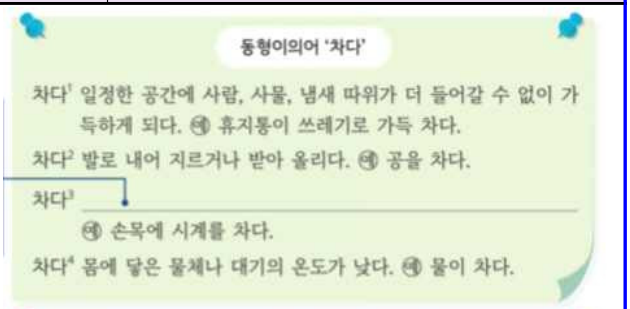
☐ 사실적 질문 : 주어진 자료 또는 상황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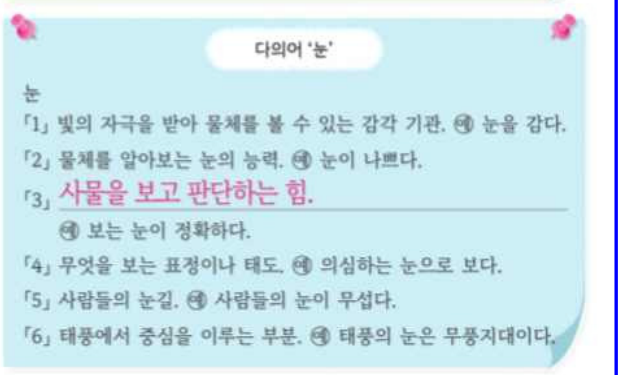
☐ 추론적 질문 : 자료 또는 상황에서 주어진 단서로 답을 재구성해야 하는 질문

☐ 비판적(감상적) 질문 : 자료 또는 상황을 학습자가 비판적·감상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배경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답을 구성해야 하는 질문

10번		모범 답안(예시)
1)	1점	사전적 정의를 찾는 방법은 ①목표 어휘의 의미를 간단하게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②여기서의 어휘이해 정도는 다소 표면적인 수준이고, 충분한 이해 수준을 이끄는 데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이 방법은 학생이 실제로 해당 어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데 한계가 있다.
2)	1점	동형이의어는 서로 관련이 없는 뜻을 가진 별개의 낱말이라서 낱말을 구분해 각각 뜻풀이를 제시합니다.
3)	1점	내용 확인
4)	1점	베먼 할아버지가 나뭇잎을 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10번	모범 답안(예시)





· 동형이의어는 서로 관련이 없는 뜻을 가진 별개의 낱말이라서 낱말을 구분해 각각 뜻풀이를 제시합니다. 다의어는 관련이 있는 여러 뜻을 가진 낱말이기 때문에 한 낱말 안에 여러 가지 뜻을 제시합니다.

위쌤닷컴(www.wesaem.com)

11번		모범 답안(예시)
1)	1점	앞 자음의 (조음 방법)이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변한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식물[싱물]', '입는[임는]', '뜯는[뜬는]'은 각각 'ㄱ, ㅂ, ㄷ'이 'ㅁ, ㄴ, ㄴ'앞에서 'ㅇ, ㅁ, ㄴ'으로 바뀐다. 이를 제시된 자음 분류표에서 살펴보면, 파열음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변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세 사례 모두 두 자음이 만나서 발음될 때 앞 자음의 조음 방식이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변한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한라산[할:라산]', '칼날[칼랄]'과 같이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소리 납니다. 다만 '생산량[생산냥]', '판단력[판단녁]'과 같은 몇몇 한자어는 'ㄴ'다음에 오는 'ㄹ'이 [ㄴ]으로 소리 납니다. 낱말을 바르게 소리 내어 읽고 소리 나는 대로 써 봅시다. ·훈련[훌:련] ·의견란[의:견난] ·물난리[물랄리] ·등산로[등산노]
2)	1점	③ 4개의 평순 모음 최소 대립쌍: 쉬리, 소리 / 마루, 머루 / 구실, 구슬
3)	1점	어간과 어간이 직접 결합해서 한 단어가 되었다 ① '꿈꾸다'는 체언 '꿈'과 용언 '꾸다'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② '뒤섞다' 는 '몹시, 마구, 온통'의 뜻을 지니는 접두사 '뒤-'와 용언'섞다' 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④ '빛나다'는 체언 '빛'과 용언 '나다'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⑤ '오르내리다'는 용언의 어간 '오르-'와 또 다른 용언의 어간 '내리-'가 연결 어미 없이 직접 결합하여 합성어가 된 경우로, '오가 다'와 같은 경우이다

12번		모범 답안(예시)
1)	1점	글자의 복잡성 정도를 고려하여 처음에는 받침이 없는 간단한 글자부터 시작하여 점차 받침이 있는 복잡한 글자를 쓸 수 있게 한다 [2국03-01] 글자와 단어를 바르게 쓴다. 글자와 단어를 쓰는 것은 쓰기의 기초에 해당한다. 글자를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바른 자세로 필순과 글자의 짜임에 맞게 낱자를 쓰게 한다. 글자의 복잡성 정도를 고려하여 처음에는 받침이 없는 간단한 글자부터 시작하여 점차 받침이 있는 복잡한 글자를 쓸 수 있게 한다
2)	2점	㉡ 유창성 ㉢ 책임 이양 또는 책임 이양의 원리

13번		모범 답안(예시)
1)	2점	읽기 유창성, 읽기 이해
2)	1점	이 문단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요? 어떤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나요? 이 문단의 화제는 무엇인가요?

13번	모범 답안(예시)
	❶ 오독 분석 학생에게 글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그 유창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학생의 읽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즉, 그 학생이 읽기에서 어떤 강점과 약점을 지니는지 알 수 있게 해 주고, 또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 보여준다. ❷ 오독 분석법 예 ■ 무반응: 독자가 글을 읽으면서 친숙하지 않은 단어에서 멈추어서 그것을 발음하기 위해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기대반응: 바람이 살랑살랑 붑니다. • 관찰반응: 바람이 _____ 붑니다. ■ 삽입: 글을 읽는 동안 원래 문장에 없는 낱말을 임의로 추가하여 읽는 경우를 말한다. • 기대반응: 마을 주변에 대나무 숲이 많았던 까닭은 또 있다. • 관찰반응: 마을 주변에 대한 대나무 숲이 많았던 까닭은 또 있다. ■ 생략: 글을 읽는 동안에 원래 글에 있는 단어를 생략하는 경우를 말한다. • 기대반응: 나는 그 냄새가 제일 좋더라. • 관찰반응: 나는 ___ 냄새가 제일 좋더라. ■ 대치오류: 문장에 있는 낱말이 아닌 다른 낱말로 대치하여 읽는 경우 • 무의미 대치오류 - 기대반응: 모두 덩달아 야단들이었습니다. - 관찰반응: 모두 덩달라 야단들이었습니다. • 의미대치오류 - 기대반응: 이마가 뭐 호떡이냐? 따끈따끈하게? - 관찰반응: 이마가 뭐 호빵이냐? 따끈따끈하게? ■ 자기 수정 오류: 처음에는 틀리게 읽었는데, 후에 곧 다시 돌아와 그 낱말을 수정하여 다시 읽는 경우를 말한다. - 기대반응: 어머니께서는 결국 수첩을 사 주시기로 하였다. - 관찰반응: 어머니께서는 결국 수첩을 사기로 - 사 주시기로 하였다. ➡ 오독은 그 학생의 읽기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독이 읽기의 잘못된 행동을 제시하는 지표가 아니라 아동의 적극적인 의미 구성을 보여 주는 지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13번	모범 답안(예시)

● 읽기의 구성 요소

읽기는 글로부터 의미를 얻는 복잡한 과정으로,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개념이다. 읽기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요소로는 **음운인식, 단어인지, 유창성, 어휘지식, 읽기이해**를 들 수 있으며, 성공적인 읽기를 위해서는 이상의 5개 영역의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읽기교수는 이상의 5개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❶ 음운인식(Phonological awareness)

음운인식은 **말소리를 식별하는 능력**으로, 말소리를 합성, 분절, 조작(**첨가, 탈락, 대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아동들이 같은 소리로 시작되는 단어를 변별할 수 있는 능력, 단어를 구성하는 소리가 몇 개인지를 아는 능력, 단어를 구성하는 소리들을 합성 혹은 분절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 최근 음운인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음운인식이 읽기능력과 강한 상관을 가지며, 더 나아가 향후 읽기 능력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robust predictor)으로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❷ 단어인지(Word recognition)

단어인지는 **단어의 발음을 파악하여 읽고, 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단어인지와 비슷한 의미로 **음독(decoding)**이라는 용어가 쓰이는데, 음독은 단어인지보다 더 좁은 의미를 지닌다. 음독은 단어의 발음을 파악하여 읽는 과정까지를 의미한다. 음독은 단어인지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어인지 교수에서 음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글자를 음독한다는 것은 단어를 구어로 바꾸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즉 문어로 기록된 글자를 보고 **소리 내어 구어로 읽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글자 음독의 초기단계에서는 글자를 구성하는 낱자를 보고 낱자의 조합을 소리로 바꾸고, 소리를 합쳐서 글자를 읽는 과정(예: '가'라는 글자를 보고, '가'가 'ㄱ'과 'ㅏ'라는 낱자로 이루어져 있음을 인식한 후, /ㄱ/와 /ㅏ/라는 소리를 합쳐 /가/라고 읽음)을 거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자동화**되면 글자를 보고 바로 글자를 소리 내어 읽게 된다(예: '가'라는 글자를 보고, /가/라고 읽음)

❸ 읽기 유창성(Reading fluency)

읽기 유창성은 **정확성(accuracy), 속도(speed), 표현력(prosody)**의 세 가지 특성을 포함한 개념이다. 즉, 읽기 유창성이란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적절한 표현력을 갖고 읽는 것을 뜻한다. 유창성 교수는 학생이 읽기 유창성 교수에 필요한 기본적 읽기 기술(예: 단어인지)을 가지고 있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가장 효과적인 유창성 교수는 **소리 내어 반복읽기**를 하는 것이다. 즉,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의 수준에 맞는 글을 소리 내어 여러 번 반복해서 읽게 할 때 유창성이 향상된다.

13번	모범 답안(예시)

❹ 어휘(Vocabulary)

어휘는 단어(word)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단어가 모여서 이루어진 집합**을 지칭한다. 즉, **단어가 개별적 단위라면 어휘는 단어들이 모인 집합**을 가리킨다. 이렇듯 어휘는 집합 개념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휘지식은 단일 단어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문맥 속의 단어 의미 추론과 단어 사이의 연관성 이해 및 활용(예: **문맥에 맞는 단어의 사용**) 능력 등을 포함한다.

❺ 읽기이해(Reading comprehension)

읽기이해는 **자신의 선행지식을 글에서 제시되는 정보와 합치면서 의미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뜻하며, 읽기교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위에서 언급한 단어인지, 읽기유창성, 어휘지식 등은 읽기이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떨어지면 읽기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읽기장애 학생 중 단어인지, 읽기유창성, 어휘지식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여전히 읽기이해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Yuill과 Oakhill에 따르면, 이러한 학생들은 글을 전략적으로 읽어 중심내용을 파악하는 능력과 읽기이해점검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이 외에도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배경지식, 배경지식 활성화의 어려움, 글의 논리적 구조 파악의 어려움 등도 읽기이해의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14번		모범 답안(예시)
1)	2점	① 언어 경험 접근법 ② 언어 경험 접근법은 <u>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듣고, 쓰고, 다시 읽으며 학습하는 방법으로</u>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네 가지의 언어 기술(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을 함께 증진 시킬 수 있다.
2)	1점	대치

발음 오류	자음의 발음 오류 형태
호랑이 → /호앙이/	• 'ㄹ'을 'ㅇ'으로 발음하는 조음 오류는 생략(초성생략, 유음생략)이다.
원숭이 → /원충이/	• 'ㅅ'을 'ㅊ'으로 발음하는 조음 오류는 대치(후설음화, 경구개음화, 파찰음화)이다.
꼬리 → /꼬디/	• 'ㄹ'을 'ㄷ'으로 발음하는 조음 오류는 대치(파열음화)다.
동물원 → /동물런/	• 'ㅇ'을 'ㄹ'로 발음하는 조음오류는 첨가이다.

14번	모범 답안(예시)

❶ 언어 경험 접근법의 의미와 특징

언어 경험 접근법은 초기 읽기 지도 방법 중 하나로서, **총제적 언어 교육 철학의 한 전략**으로 사용되어 왔다. 총체적 언어 교육의 철학을 바탕으로 학습자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생각을 듣고, 말하고, 쓰고, 그것을 읽음으로써 통합적인 언어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언어 경험 접근법은 학습자의 실제 경험과 의미를 중심으로 언어 활동을 전개하는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언어 경험 접근법은 활동에 대한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증진시키고, 학생의 경험과 함께 경험이 표현된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한다. 즉, 학생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수준과 이해, 흥미에 따른 이야기를 학습 자료로 사용함으로써 학습 참여도와 흥미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둘째, 언어 경험 접근법은 개별화 교육을 토대로 한다. 언어 경험 접근법에는 구조적이거나 체계적인 기술 발달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교사는 지속적으로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를 진단·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의 능력 수준에 맞는 자신의 사고와 경험, 단어, 문장들로 만들어진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의 학습 속도에 맞추어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언어 경험 접근법은 통합적인 언어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언어 경험 접근법은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듣고, 쓰고, 다시 읽으며 학습하는 방법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네 가지의 언어 기술(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을 함께 증진시킬 수 있다.

넷째, 언어 경험 접근법은 언어의 모든 형태를 포함하며, 학습 자체가 학습자의 흥미나 관심과 관련되기 때문에 동기가 내재적이다. 또한 경험을 기초로 한 자료를 사용하기에 특별한 활동 자료가 필요 없으며, 언어와 글자 사이의 관계를 학습자가 알도록 도와줌으로써 이해 능력을 강조한다. 또한 학습자의 구어를 사용하므로 글을 모르는 아동도 포함시킬 수 있으며, 말하기가 쓰는 것만큼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감과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교사와 학습자 간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교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14번	모범 답안(예시)

❷ 총체적 언어(whole language instruction)

총체적 언어 접근법으로 지도한다. 학생들의 실제 생활과 경험을 읽기 자료로 구성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통합**해 지도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고, 발표한 내용을 글로 옮겨 적으면서 자연스럽게 쓰기를 배운다. 이후 자신이 쓴 내용을 읽으면서 읽기 유창성이 향상된다. 자신이 한 말을 글로 옮기고 그 글을 읽어 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의미 단위로 끊어 읽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언어 기능을 통합적으로 배우게 된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을 구두 언어든 문자 언어든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말한 내용을 글로 적고 글을 따라 쓰고 쓴 글을 읽으면서 학생들은 학습에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읽기 유창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총체적 언어 교수는 읽기능력이 자연적으로 습득된다는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총체적 언어 교수에서는 낱자-음소의 대응관계를 활용하여 단어를 해독하도록 가르치는 파닉스 교수와는 달리 **'의미 있는 (meaningful)' 읽기 활동**을 통해 단어를 가르칠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총체적 언어 교수에서는 학생에게 의미 있는 단어를 선택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이 단어의 시각적 형태, 발음 그리고 의미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총체적 언어 교수에서는 학생에게 의미 있는 단어를 선택하여 가르치기 때문에, 단어인지 교수를 할 때, 낱자(군)의 난이도와 순서를 특별히 고려하여 지도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파닉스 교수에서는 '냉장고'라는 받침이 있는 단어는 받침이 없는 단어를 가르친 후에 가르치지만, 총체적 언어 교수에서는 이러한 면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또한, 총체적 교수에서는 아동이 다양한 문학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아동이 읽는 문학작품 내에서 단어를 선택하여 가르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파닉스 교수가 단어 인지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충분한 근거가 제시된 이후부터 총체적 언어 교수에서도 임베디드 파닉스를 삽입하여 단어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총체적 언어 접근법은 발음 중심 지도법에 대한 대안으로, 언어의 구성요소들을 음소나 자모체계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전체로 가르치는 언어교육법이다. 언어를 부분으로 나누어 습득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글을 읽을 때에도 이러한 부분적인 요소에 집중하여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본다. 따라서 총체적 언어 접근법에서는 의미이해에 중점을 두고 실제 생활에 활용되는 문자언어 자료를 활용하고 학습자중심 과정으로 지도한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는 순서에 따라 제시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지도하며, 전체 이야기에서 문장과 단어순으로 지도하는 하향식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자발성과 능동적인 언어경험 그리고 아동의 흥미를 강조한다.

14번	모범 답안(예시)

발음 중심 언어교육법	총체적 언어교육법
단어 중심으로 지도한다.	문장 중심으로 지도한다.
발음과 음가를 중시한다.	의미 파악을 중시한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지도한다.	자연주의적 원칙을 따른다.
단어카드, 철자카드를 사용한다.	그림 이야기책을 사용한다.
그림, 삽화는 발음지도에 장애가 된다.	의미 파악을 위해 그림과 삽화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
내용 파악을 위한 질문은 가능한 한 하지 않는다.	내용 파악을 위한 예측을 적극 권장한다.

15번		모범 답안(예시)
1)	1점	㉠ 가치의 근거
2)	1점	(가) 질문하기 (나) 맞장구치기
3)	1점	듣기·말하기 효능감
4)	1점	글을 쓰는 목적

[가치 탐구 학습 모형]

문제 분석하기	- 동기 유발 - 학습 문제 확인 - 학습의 필요성 또는 중요성 확인 - 문제 상황 분석
가치 확인하기	- 가치 발견 또는 추출 - 가치 근거 확인
가치 평가하기	- 가치 비교 및 평가 - 가치 선택
가치 일반화	- 가치 적용 - 가치 재평가